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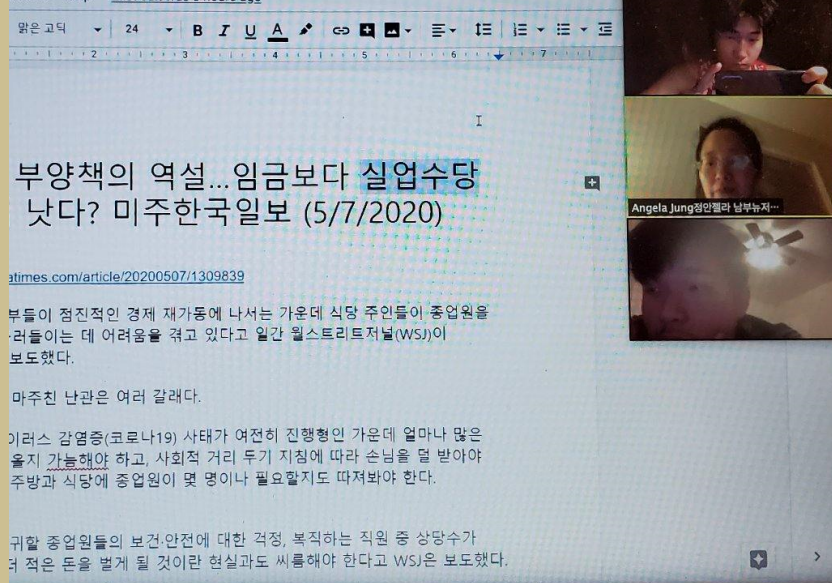
# 즐거로운 집콕생활

KSSNJ | 배우고 가르치는 윤도웅



## 윤도웅의 즐거로운 집콕생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모두 바꾸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 습관을 바꿔야 했습니다. 남부뉴저지통합 한국학교 11학년 윤도웅 학생은 코로나로 인해 자기의 생활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윤도웅 학생은 북 실력자로서 본교에서 인턴교사로 모둠북 기초반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학교가 닫으면서, 여러 주 동안 학생들을 가르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제안했을때, 윤도웅 인턴교사는 앞장서서 교육 영상들을 만들고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북과 채가 없어서 연필로 영상을 만들었지만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8주 분량의 교육영상을 만들었고 계속해서 영상을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어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계속해서 한국어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한국 기사들을 읽으면서 경제 용어나 심화 단어들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한국 기사를 읽으면서 모국인 대한민국이 방역강국임을 깨닫고 자부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윤도웅 인턴 교사는 계속해서 모국어를 배워서 이 기간동안 한국어 실력을 더 늘리고 싶다고 합니다. 이 시기가 빨리 끝나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 한국어도 배우고 모둠북도 더 열심히 가르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 JOSH'S WISE STAY-AT HOME

The COVID-19 has reshaped everyone's lives, which caused most of the people to adjust their lifestyles. This was not an exception to Josh Yoon, an 11th-grade student at KSSNJ, who also serves as an intern teacher. As a professional Korean percussion player, he has taught a beginner percussion class back at school. However, due to school closure caused by the pandemic, he could not teach his class for a few weeks. So, when the Korean school recommended online class, Josh took the lead and started creating videos for his students. He usually creates one video per week and teaches the class using his pencils or pens as sticks. So far, Josh has created videos for 8 weeks, and he is looking forward to creating more videos to stay in touch with his students. He said that the process of creating lesson videos are challenging, but as an intern teacher, he feels obligated to teach his students at home. In addition to that, he regularly has Korean lessons with his mom, who is also the vice principal of KSSNJ. Josh mentioned that he has analyzed different Korean news articles to understand business and advanced Korean terms. By reading various articles, his Korean has improved, and he was able to acquire knowledge about how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proficiently fighting against the COVID-19. Although he sometimes does not want to spend an hour to learn Korean, he feels that it is important to learn his mother tongue, and he continues to learn Korean with his mom. He hopes that the situation gets better so that he can go back to Korean school to learn and teach other students.